인플레와 메모리 업황 경계에 하락, 장후반 유가 완화에 낙폭 일부 회복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마저 위험 경계

- 미 증시는 DOW -0.44%, S&P500 -0.27%, NASDAQ -0.28% 하락. 장후반 유가 완화에 따라 장중 낙폭 일부 회복하며 마감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0.87% 반면, MU -3.8% 약세. 실적 서프라이즈의 이면, 자본지출 증가와 메모리사이클 정점 가능성 경계. 메모리 공급부족 상황은 마진 상승에 기여하나, 반대급부로 PC 및 스마트폰 출하 전망 감소. 내년 이후 대규모 공급 확대 가능성도 경계요인
- 증시 내 경계감 지속. 피터 부크바 CIO 는 분쟁이 4 주째로 접어들면서 유가가 $65 까지 돌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, 기술 및 사모신용 분야의 우려 지속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신중할 것을 당부

글로벌 통화정책회의 주간, 일제히 인플레 경계감 표명

- FOMC 에 이어 하루간 ECB, BOE, BOJ 연이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며 매파적 동결. 영국 2Y 국채금리 +40bp 까지 변동폭을 확대하며 강한 매도세. 달러인덱스도 장중 99 선 하회
- CME FedWatch 상 금리인하 재개시점은 2027 년 6 월까지 늦춰지며 시장 눈높이 '연내 인하 없음'을 시사
-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0.5 만건으로 전주/컨센 하회, 2 개월래 최저치
- 1 월 신규주택판매 MoM -17.6% 급감, 컨센 하회. 신규주택재고 +0.4% 증가

여전한 중동 불확실성 속 유가와 천연가스 급등락

- 이란의 카타르 LNG 시설 공격에 에너지 변동성 확대. 전일 이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 피격에 대한 보복 공격
  유럽 천연가스선물(Dutch TTF) +13%
- 다만, 트럼프대통령이 지상전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, 이스라엘이 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하며 네타냐후 총리의 종전이 멀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유가 진정. 브렌트유 $108.6(+1.2%), WTI $96.1(-0.2%)
- JP 모건은 전쟁 조기종료에 대한 낙관은 위험하다는 입장. 유가급등 환경은 여전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언급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TSLA	테슬라	-3.2%	미 도로교통국이 FSD의 시야 확보 및 노면 감지 결함 조사 단계 격상하며 약 320만 대 규모의 잠재적 리콜 리스크 부각. 한편 외부 의존도 낮추고자 2나노 공정 AI 칩 공장 '테라팹' 건설 공식화한 가운데, 모건스탠리는 내재화 시 장기적 이점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 의존도 매우 높다 평가
RIVN	리비안	+3.8%	UBER(-1.7%)가 로보택시 도입 일환으로 최대 $1.25B 투자 약속하며 주가 강세. '28년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를 시작으로, '31년 말까지 주요국 25개 도시에서 총 1만 대의 완전 자율주행 리비안 'R2' 로보택시 운행 계획. 또한 우버는 '30년부터 최대 4만 대의 자율주행 R2 추가 구매 위한 협상권 확보
ACN	액센츄어	+4.3%	2Q26 실적 발표. 호실적 발표하며 주가 강세. 다만 가이던스는 다소 약했음. 줄리 CEO는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, 시장은 수주 성장률 둔화를 우려
FDX	페덱스	+1.8%	3Q26 실적 발표. 어닝서프라이즈 및 가이던스 상향에 주가 강세. CFO 는 향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강력한 FCF 를 창출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언급. 한편 6 월 1 일 예정된 화물 부문의 인적 분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재확인
BABA	알리바바	-7.1%	3Q26 실적 발표. 매출 컨센 하회 및 이익 급감에 주가 하락. AI 분야의 진척도가 이커머스 사업의 역풍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. 한편 CEO 는 AI 투자 가속화 속 5 년 내 클라우드 및 AI 매출 $100B 목표 제시